

# 지혜 · 정법 구현해 '손오공' 되자

인간과 가장 닮은 영장동물로 여겨져 '영리' '지혜로움' '재주꾼' 등 상징 부처님 전생담부터 佛家와 깊은 인연 번뇌 · 망상 시달리는 인간 모습 묘사

올해는 병신년(丙申年), 붉은 원숭이의 해다. 12지의 아홉 번째 동물인 원숭이(申)는 시각으로는 오후 3시에서 5시, 달(月)로는 음력 7월에 해당하는 시간신이며, 방향으로는 서남서인 방위신이다. 또한 인간과 가장 닮은 영장동물이기도 하다.

일부 동양문화권에서는 원숭이가 사람과 닮은 모습과 잔교 있는 모습으로 인해 '재주 없는 동물'로 기피하기도 한다. 그러나 불교문화권 국가 등 대부분의 지역에선 원숭이를 동물 가운데 가장 영리하고 재주 있다고 해서 '재주꾼', '영리함' 등으로 표현한다. 한편으로 사기(邪氣), '요사스럽고 나쁜 기운'을 일컫는 말을 내뱉는 동물이라 하여 상징성을 띄기도 한다.

### 불교 설화 속 원숭이 이야기

원숭이는 부처님 전생담에 등장할 만큼 불교와 인연이 매우 깊다. 부처님은 어느 전생에 원숭이 왕으로 태어났다고 전해진다. 어느 날 원숭이 왕은 길을 거닐다 구렁이에 빠진 사냥꾼을 발견하고, 그를 구하기 위해 넝쿨을 타고 내려가 사냥꾼을 엮고 땅 위로 올라온다. 간신히 목숨을 구한 사냥꾼은 원숭이 왕에게 연신 '감사하다'는 말을 하지만, 이내 배고픔에 사로잡혀 원숭이 왕을 잡아먹기로 결심한다. 결국 사냥꾼 손에 죽어간 원숭이 왕은 사냥꾼을 불쌍히 여겨 '미래세에 부처가 되어 저 같은 인간들을 반드시 제도하라'고 마음을 먹고, 미래세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되었다는 이야기다.

예로부터 불교문화권 국가에선 원숭이가 '지혜', '정법 수호' 등을 상징하는 동물로 인식돼 왔다. 이로 인해 통일신라 때는 무덤의 호석으로 갑옷을 입은 원숭이 상을 사용하기도 했으며, 불가에서는 원숭이가 '잡귀를 물리치고 정법을 지키다'는 믿음으로 법당의 지붕에 원숭이 상을 세웠다. 인천 용화사, 속리산 법주사, 전남 여천 흥국사 등에서 원숭이 조각상이나 벽화를 찾아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유기>에선 이 같은 상징성을 담아 원숭이를 '손오공'이란 인물로 의인화했다. 손오공은 관음보살의 교화에 따라 삼장법사 일행을 인도하는 정법 수호신으로 출연한다. 또한 신라시대 '이차돈의 순교' 설화에선 지혜와 용기로 상징되는 원숭이가 이차돈의 순교에 크게 슬퍼하는 모습으로 등장한다.

육리(鬚叟)가 그의 목을 베니 허연 것이 한길이나 솟아났다. 이에 하늘은 침침해져 사양(斜陽)이 빛을 감추고, 땅은 진동하는데 천화가 내려왔다. 입금은 슬퍼하여 눈물이 곤룡포를 적시었고 채상(宰相)은 상심하여 진땀이 관에까지 흘렸다.



십이지신 '원숭이'. 대한제국, 통도사성보박물관 소장. 십이지신본(十二支神像)은 도량장엄(道場莊嚴)의 하나로서 절에서 큰 행사를 할 때 잡귀의 침범을 막는 벽사(辟邪) 의미로 12방위에 걸었다.

감천(甘泉)이 문득 마르니 고기와 자라가 다투어 뛰고, 곧은 나무가 먼저 부러지니 원숭이가 떼 지어 울었다.

이는 '지혜'와 '정법 수호'로 상징되는 원숭이가 뛰어다니며 울었다는 것을 묘사함으로써 정법

수호를 위해 목숨 바친 이차돈의 순교를 더욱 거룩하게 표현하고자 한 뜻으로 풀이된다.

불교에서 원숭이 의미 불교는 원숭이를 번뇌 · 망상에 시달리는 인간의 마음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열반에 들기 전 마지막으로 설법하는 광경을 담은 <유교경(遺教經)>이 대표적이다.

"부지런히 힘써 마음을 행복 받아라. 이 오근(五根)도 그 주인은 마음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마땅히 그 마음을 제어하라. 마치 그것이 큰 원숭이가 나무를 만나서 이리 뛰고 저리 날뛰어 제어하기 어렵고 같으니, 마땅히 빨리 그것을 바로잡아 방일하지 못하게 할지니라."

<유교경>은 "이 (원숭이 같은) 마음을 그냥 놓아 두면 자신과 남을 모두 해치게 되지만, 그 흐트러진 마음을 한 곳에 고정시키면 무슨 일이든 이룩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석두(石頭) 스님은 <참동계(參同契)>에서 선(禪)의 이치에 대해 "마음의 원숭이는 가만히 있지 못하고, 생각에서 나온 말은 사방으로 달리며, 신기(神氣)는 밖으로 어지럽게 흩어진다"고 표현했다. "마음은 원숭이 같고 생각은 팔과 같다"는 뜻의 사자성이 심원의마(心猿意馬)도 여기서 유래된 것이라 전해지는데, 원숭이 같이 마음이 안정되지 않아 생각을 집중할 수 없을 때를 일컫는다.

반산보적(盤山寶積) 선사도 부질없이 외연을 쫓는 마음을 원숭이에 비유했다. <선문염송(禪門拈頌)>에 따르면 "끝없이 위로 향하는 외가닥 길은 1000명의 성현도 전하지 못하거늘 교학자들은 공연히 헛수고를 하니, 마치 원숭이가 물속의 그림자를 잡으려는 것과 같다"고 소개한다.

서산 대사는 세속적 현실에 매몰되거나 관념적 율타리에 갇힌 사람들을 <선가귀감(禪家龜鑑)>에서 다음과 같이 비유했다.

"현실만 따르는 것은 마치 목마른 사슴이 아지랑이를 물인 줄 알고 찾아가는 것과 같고, 마음만을 붙잡으려는 것은 원숭이가 물에 비친 달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범부들은 눈앞의 현실에만 따르고 수도인은 마음만을 붙잡으려 한다. 그러나 마음과 바깥 현실 두 가지를 다 내버리는 이것이 참된 법이다."

역대 선사들의 가르침처럼 인간의 마음은 언제나 마음 안과 밖으로부터 오는 것들에 휩싸인다. 대상에 반연하면 응당 그곳에 머물게 되고, 살아 숨 쉬는 생동감이 사라진다. 집착과 미혹이 활발한 성품의 작용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간은 본래 부처님에도 불구하고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들은 이와 같은 원숭이의 마음을 버리고 참된 성품을 보는 선 수행을 강조했다. 혜능 스님 등 여러 조사들은 생각이 한 곳에 매이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자재롭게 활동하는 '무주(無住)'를 강조했다. '무주(無住)'는 언제 어디서나 활발히 작용하는 것이며, 무지나 혼돈에 침체되지 않는 상태다.

이것이 바로 원숭이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인간은 원숭이의 마음과 같이 분주한 마음을 다스려 지혜와 정법을 쫓으면, 결국엔 부처님 전생담의 원숭이 왕과 <서유기>의 손오공처럼 불법을 수호하는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 원숭이띠해 불교소사

- ▲384년(백제 침류왕 1) 9월, 마라난타 스님 진(晉)으로부터 백제에 음. 백제불교의 시작.
- ▲684년(신라 신무왕 4) 8월, 백제의 도녕(道寧) 스님, 일본에서 비를 빌어 가뭄을 구제.
- ▲804년(신라 애장왕 5) 9월, 망덕사의 두 탑이 서로 부딪침. 보조제징(普照體澄) 스님 출생(880 입적). 진감혜소(眞鑑慧昭) 스님, 세공사(歲貢使)를 따라 당에 들어감.
- ▲864년(신라 경문왕 4) 4월 10일, 선각명미(先覺明微) 대사 출생(917.8. 입적) 광자윤다(廣慈允多) 스님 출생(926 입적) 선각도선(先覺道詮) 스님, 옥룡사 창건
- ▲924년(신라 경명왕 8) 2월 19일, 신라 황룡사에 백고좌를 개설해 경을 강의하고, 선승 300인을 공양함. 4월 1일, 봉림사 진경대사비 세움. 신라, 왕이 송하하니 황복사에서 화상. 봉암사 지증대사비 세움.
- ▲1104년(고려 숙종 9) 벌부반을 세우고 승도를 뽑아 함마군(降魔軍)을 삼음.
- ▲1236년(고려 고종 23) 팔만대장경 조성 시작(1251년까지 대장경 조성불사 진행).
- ▲1404년(조선 태종 4) 12월, 시간원, 부녀가 절에 다니는 것을 금지.
- ▲1464년(조선 세조 10) 1월 5일, 간경도감, <선종영가집 언해> 2권 조판간행, <아미타경 언해> 조판간행. 4월 7일, 간경도감, <금강경육조해 언해> <심경 언해> 조판간행.
- ▲1644년(조선 인조 22) 5월 10일, 편양언기(鞭羊彦機) 스님 입적(1581 출생).
- ▲1704년(조선 숙종 30) 1월 4일, 월담설재(月潭雪齋) 스님 입적(1632출생).
- ▲1764년(조선 영조 40) 8월 7일, 송파각원(松坡覺園) 스님 입적(1686 출생). 사암채영(沙巖采永) 스님, <불조원류> 지음.
- ▲1884년(조선 고종 21) 1월 13일, 지암이중욱, 강원도 양양에서 출생(1969 입적).
- ▲1944년 3월 15일, 총독부, 31본사 주지에게 조선불교진흥책(皇道불교 확립, 불교 민중화, 불교 생활화)으로 회보(回報) 발령. 4월 28~29일, 조계종, 제1회 포교사자격 검정 시험 실시. 6월 29일, 만해 한용운 스님, 심우장에서 입적(1879 출생). 9월 30일, 해화전문학교(동국대 전신), 전신 교육비상조치에 따라 강제 폐교. 12월 8일, 종교보국회 결성.
- ▲1980년 10.27법난사건. 부산불교연합회 창립
- ▲1992년 11월 동화사 통일약사여래대불 완공
- ▲2004년 5월 7일 조계종 신도회 통합 '중앙신도회' 출범. 11월 20일 금강산 신계사 남북공동북원 대웅전 낙성



## 華嚴經 論講 (화엄경 논강)

청량국사의 청량소 + 통현장자의 화엄론 + 진귀가 지은 진귀론으로 논강함

- ◆ 강의용 화엄경책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강의용 출판
- ◆ 강의용 사경집 사진 첨부 한글 화엄경 사경집 출판
- ◆ 2016년 2월 출판예정 진귀수행 화두집(平溫) 출판

- 책 구입은 입금후 1899-9532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택배로 보내 드립니다.

## 平溫 眞歸의 행장

대다수 불자나 종교인 들의 상식과 지식으로는 理解가 불가능하고 믿기 힘든 不思議 수행자로, 비영리단체 華嚴經講院의 講主로 재임하면서, 방대하고도 심오한 깨달음의 경계를 설했던 80권 화엄경을 대본없이 즉설로 청량국사의 청량소와 통현장자의 화엄론과 스스로 지은 眞歸論으로 논강하며 또한 팔만대장경을 즉문즉설하는 희유한 괴짜 修行者 이다.

2015년 현재 화엄경 眞歸論을 500p×100권 분량으로 한국불교 역사상 최초로 80권 화엄경 주석서를 80화엄 한자원문 + 80권 한글완역 + 80화엄 영어완역 + 진귀론 한글주석 + 진귀론 영어주석으로 집필중이며, 競爭과 政爭, 論爭, 鬪爭, 戰爭, 등으로 온 우주가 갈등하고 화해속인 말법시대에 超국가 超민족 超종교 超종파 超반연 의 화두인 <평온>을 강론하고 힐링하는 財團法人 <평온센터-보림>을 건립 추진중 이다.

우리는행 1005-002-700714 화엄경 강원 문의 1899-9532

##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謹賀新年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서산 부석사

주지 정덕 사부대중일동

소원성취 기도 영험도량 템플스테이 상시운영

주지 주경 사부대중일동

충청남도 서산시 부석면 부석사길 243 TEL 041)662-3824, 010-7734-3824 www.busuksa.com

불교교육 전법도량 동산반야회 동산불교대학

학장 법산 경일 이사장 이종현 동산가족일동 www.dongsanbud.net

서울시 종로구 우정국로 45-11 TEL 02)732-1206 / FAX 02)732-1207